

청렴 삼대(三代)

연극 대본 : 문주원

참고 수기 : 문복례 -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

서대현 - 광야의 디딤돌, 유재현 - 부패한 당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배우세요!

<등장 인물>

-복례 가족들-

- 복례 60대 중반/女. 남편과 사별 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며 남매를 길렀다. 정직하고 올바른 성격.
- 대현 30대 후반/男 복례의 아들. 공무원. 성격이 진득하고 느린 편이다.
- 대현부인 30대 중반/女. 재취업 준비 중. 성격이 살짝 급하다
- 재운 13세/男. 대현의 아들. 초등학교 6학년. 학급 회장. 똑똑하지만 마음이 약하다.
- 수진 30대 중반/女. 복례의 딸. 파티셰. 호탕하면서도 섬세하다.
- 수진남편 30대 초반/男. 회사원. 유머러스하고 풍채가 좋다.
- 하은 미취학 아동/女. 수진의 딸.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할머니를 특히 좋아한다.

-공장 직원들-

- 미스 신 20대 초반/女. 눈치가 빠르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
- 송이엄마 30대 초반/女. 의리가 있다.
- 새댁 20대 후반/女. 귀가 얇다.
- 김 주임 40대 초반/男. 말이 많고 가볍다.
- 박 부장 40대 후반/男.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격.

-학교-

- 담임 40대/女. 엄격하지만 온화하다.
- 진구 13세/男. 재운의 절친한 친구. 학급비 관리를 맡은 반장. 정의감이 있다.
(참고한 수기에는 '민재'라는 가명으로 등장하나, 같은 수기에 등장한 '성재'와 비슷한 이름으로 헷갈리기 쉽기에 '진구'로 수정함.)
- 성재 13세/男. 학급 부회장. 덩치가 있고 다혈질이나 겁이 많다.
- 예빈 13세/女. 재운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
- 세진 13세/女. 똑 부러지는 성격.
- 前 상관 60대 중반/男. 재현의 前상관으로, 퇴직 전 청렴한 이미지로 대현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나 퇴직 후 그에게 청탁을 한다.

*최소 7명의 배우 필요.

한 명이 다른 씬에서 다른 배역 연기(멀티) 가능.
아역(재윤, 하은)도 성인 배우가 연기 가능.

대현 : 김 주임, 친구 멀티

대현부인 : 송이 엄마, 아이들 담임 멀티

수진 : 새댁, 세진 멀티

하은 : 미스 신, 예빈 멀티

수진남편 : 박 부장, 성재 멀티

재윤 : 前 상관 멀티

<배경>

2016년 가을,
서울에 위치한 수진의 집, 과거 복레가 근무하였던 자동차 부품 공장
공무원 대현이 근무하는 사무실, 6학년 재윤의 반

<기획의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남들의 공격과 비웃음을 사기 쉬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외롭고 괴롭지만, 끝까지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한 개인이 지키고자한 가치가 대를 이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세 가지 수기를 엮어 재구성한 연극 대본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시놉시스>

복레의 생일을 맞아 온가족이 복레의 딸 수진 집에 모인다. 티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김영란 법 시행에 대한 소식이 복레의 회상으로 이어진다. 남편을 잃고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했던 복레. 청렴한 성품으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정년 후에도 회사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복레가 자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이, 공무원인, 복레의 아들 대현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떠올린다. 그는 존경하던 옛 상관을 통해 들어온 청탁을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봉투 속 금액을 확인하고 그의 미뤄지는 승진 문제와 돈에 대한 아내의 타박까지 들으니 마음 속 갈등이 시작된다.

장모님을 위해 손수 수제비를 끓인 복레의 사위.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가루 반죽 때문에 수제비의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른 재료들이 모두 좋아도 상한 재료 하나 때문에 전체 요리를 망칠 수 있다는 깨달음은 가족들이 복레가 강조하는 청렴을 더욱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된다. 그 이야기를 듣던 복레의 손자이자, 대현의 아들인 재윤은 지난 주 학교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일을 가족들 앞에서 고백한다. 회장으로서 학급비를 마음대로 쓰고 그것을 감추려했던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다.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대현은 자신의 옛 상관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가족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다시 선다.

씬 1. 수진 집 거실 - 할머니(복례) 생신 모임

무대 전체는 암전인 상태에서 무대 왼편만 핀 조명이 비춘다.

대현, 급하게 뛰어 무대 왼편으로 등장.

대현의 핸드폰 전화벨이 울린다.

대현 (아내의 전화인 줄 알고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급하게 받으며) 다 왔어. 집 앞이야. (전화 건 상대가 아내가 아니다) 어... 선생님. (사이) 네? (양복 안주머니를 뒤지면 도톰한 흰 봉투가 나온다) 선생님!!!

대현이 있는 무대 왼편 암전.

무대 중앙에 작은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생일 케이크가 있다.

케이크 위에는 길쭉한 초가 6-7개 정도 꽂혀져 있다.

무대 벽면에는 작업복을 입은 복례가 케이크를 들고

환히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있다.

대현을 제외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다.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며 무대 조명이 점점 밝아지고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며 시끌벅적해진다.

재윤 노래 빨리 해야 돼. 촛농 떨어진단 말야.

하은 엄마, 초콜렛은 나 먹으면 안 돼? 응?

대현부인 (재윤에게) 니네 아빠 어딘지 전화 좀 해봐라.

수진 설탕 많이 안 넣고 만든 거니까 어머니도 드셔도 돼요.

무대가 완전히 밝아지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가족들.

가족들 (합창) 생신 축하 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현, 무대 사이드에서 등장하여 자리에 앉으며 노래에 합류한다.

대현의 어깨를 치며 눈치 주는 대현부인.

그런 대현을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는 복례.

가족들 (합창) 우리 할머니/엄마/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박수소리.

수진남편 어머니 소원비시고 촛불 끄세요.

복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 초를 끈다.

다시 한 번, 박수치는 가족들.

수진 이야, 우리 엄마 촛불 부는 힘 보니까 나보다 더 건강하신데? 기력 좋으셔~ 엄마!

하은 (케익 위에 초콜릿을 집어 들며 할머니 곁으로 간다) 할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

복레 (하은을 품에 안으며 장난스럽게) 비밀.

수진남편 (대현을 발견하고) 형님 언제 오셨어요? 요즘도 바쁘시죠?

대현 뭐, 우리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수진남편 맨날 고소에 고발에... 그런 일들 처리하다보면 기 짝씩 빠리지 않아요? 그런 민원들 다 듣고 있으면 세상엔 다 나쁜 놈만 있는 거 같고! 그 부서는 전입자는 없고 전출자만 많다면서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형님은 무슨 힘으로 거기서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이제 좀 편하게 사시지.. 어유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홍삼 드세요, 홍삼!

대현부인 이 이는 맨날 늦어. 또 오지랴 부려서 남일 도와주느라 늦었지? 어머니... 이 이 너무 느려요. (혼잣말) 내가 느려도, 느려도 승진까지 늦어질 진 몰랐지. 재윤이 중학교 가면 학원 보내야 하는데, 저도 이제 일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일자리 찾기 너무 힘들어요. 에휴~ 돈이 뭐 길래.

대현 (살짝 짜증이 밀려온다) 돈 얘기 그만해.

복레 늦어도 괜찮아. 왔음 됐다. 다들 고맙다.

재윤 와 역시 고모가 만든 케익!!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며) 나 이거 페이스북에 올릴래! 친구들이 고모가 만든 케익들 다 예술이래! 지난번 내 생일 케익 사진에는 좋아요 19개 달렸어~

 티비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나레이션.

앵커 (나레이션) 부정청탁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 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주목되는데요. 공무원들 뿐 아니라 (소리 fade out)

재윤 맞다. 아~ 나 저거 숙제해야 되는데. 아빠. 아빠는 저거 잘 알지?

대현 (당황하며) 어? 어...

재윤 (핸드폰을 대현의 입에 가까이 대며) 그럼 여기다 녹음해줘. 이따 집에 가서 숙제에 받아쓸래. (기자 흉내를 내며 장난스럽게) 김영란 법이 뭔가요?

대현 (그러지 않아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로 고민되는데 아들까지 김영란 법을 이야기하니 짜증스럽다. 재윤이 든 핸드폰을 치우며) 서재윤! 네 숙제는 네가 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재윤 (머쓱하다) 아니... 나는 아빠가 더 쉽게 설명해주니까 그렇지...

수진 아니, 오빠는 왜 애한테...

수진남편 (분위기를 바꿔보려 끼어들다) 그 때 저런 법만 있었어도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진 않으셨을 텐데요. 그쵸?

 말없이 웃는 복레.

수진 그러게. 우리 엄마... 참 힘들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저런 법 생겨서 좋다, 나는. (장난스럽게 대현을 툭 치며) 오빠 좀 피곤하겠다? 오빠 주변 공무원들은 뭐래?

대현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 거린다)

재윤 할머니 얘기? 무슨 얘기에요?

수진 너희 아빠가 고3 때, 고모가 중3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지? 그래서 할머니가 일을 하셨어야 했어. 우리 남매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 때 할아버지 친구 분이 할머니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었는데... 담당자한테 사례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할머니가 거길 안가셨지.

하은 엄마, 사례가 뭐야?

수진 고맙다는 뜻으로 돈이나 선물을 주는 거야.

재윤 아 아깝다... 대기업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돈을 주더라도 우선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복레 그래서 할머니도 고민을 많이 했단다. 회사가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희 엄마, 아빠가 자기 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다가 잠든 얼굴을 보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할미는...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재윤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할머니 정년퇴임 하지 않으셨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요. 그럼 그건 다른 회사네요?

복레 할미 얘기 듣고 싶으냐?

재윤 네. 완전 궁금해요!

하은 나도!

암전.

씬 2. (과거 회상) 자동차 부품 회사.

잔잔한 배경음악이 깔린다.
 다시 무대 가운데 불이 켜지면
 작업복을 입은 '검은 머리'의 복레, 케익(씬 1에서 사용된 소품)을 들고
 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다.
 무대 주위의 조명들이 켜지면
 밝은 표정의 공장 직원들이 복레에게 다가온다.
 그들과 살짝 떨어져있는 미스 신은 못마땅한 표정이다.

새댁 조장님 축하드려요!! 늘 열심히 하시더니 좋은 날도 오네요!

송이 엄마 하이고... 새벽에 빨리 와가고 밤 열시나 되서 집에 가모, 이노무 회사에 몇 시간이나 있는기고? 아따 요가 집이다 집이야. 언니는 지겹지도 않나? 내는 여기 꼬라지만 봐도 하이고...

새댁 버스도 두 번 갈아타신다면서요.

송이 엄마 그때 내가 부활절이라고 새벽예배 갔다와서 일찍 출근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보니까네 복레 언니, 아니 조장님이 그~ 새벽부터 쉼없이 청소하고 계시더라카이.

새덕 카아~ 역시~ 조장님 되실 만하네!

복레, 쓱스러워하며 케익을 일회용 접시에 담아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준다.

복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회사에서 그냥 왕언니 대우해준거지. 자기들 더 잘 챙기면서 일 열심히 하라구. (미스 신에게 초콜릿 있는 부분을 잘라주며) 자기는 초콜릿 좋아하지?

미스 신 (케익을 받으며 떨떠름하게) 조장하면, 수당 얼마나 더 준대요?

복레 (당황) 어? 그건 나도 아직 잘...

무대 사이드에서 등장하는 김 주임.

김 주임 (짜증) 야, 이거 봐라~ 비 온다~ 가뭄인데 비 소식이 없다고 다들 야단인데 갑자기 비가 와요~ (직원들을 향해) 왜 비가 올까? 정답은...! 내가 아침에 세차를 했거든! 우리 공장은 일기예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차하는 날이 비 오는 날이다~ 이렇게 알면 돼~

미스 신 (케익을 들고 달려 가서) 과장님~ 이것 좀 드세요.

김 주임 이게 뭐야?

미스 신 당 떨어지실 시간이잖아요. 단 거 드시고 힘내시라구요.

김 주임 이야~ 역시, 미스 신!! 잘 먹을게~

김 주임, 케익을 한 입 먹으려는데,
미스 신, 김 주임의 팔을 잡고 무대 사이드로 이동한다.
눈이 뚱그려져서, 미스 신에게 끌려가는 김 주임.
미스 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김 주임에게 건넨다.

김 주임 응? 이게 뭐야?

미스 신 별 거 아녜요. 구두 상품권인데... 과장님 구두 뒷축이 좀 많이 헤지셨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고향 내려가실 때 새 신 신고 기분 좋게 가시면 좋잖아요.

김 주임 아유~ 아유~ 뭘 이런 걸 다. (손을 내저으며)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말과 다르게 봉투를 낚아채으며) 근데 또 내가 안 받으면 미스 신이 민망하겠지? 역시 미스 신은 눈썰미가 좀 남달라! 내 구두 오래된 건 어떻게 알고. 난 내 신발 뒷축 닳았는지도 몰랐네. 역시 나이가 어려서 시력이 좋은가봐~ 젊은 게 좋다! 좋아!

김 주임, 호탕하게 웃으며 퇴장.
박 부장, 무대 뒤편으로 지나가는데
미스 신,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내며 박 부장을 부르며 뛰어간다.

미스 신 박 부장님~

무대 밖으로 퇴장하는 두 사람.

새댁 아유... 채는 참. 참... 알립다!

송이 엄마 밭긴 뭐가 미버. 지도 다~~ 살아볼끼라고 저래쑤는긴데- 저리 처신을 해야 또 맞지... 아 또 벌쓰로 추석이 됐다 아입니까. 세월 참 잘가요. 내도 뭐 한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새댁에게) 넌 뭐 돌릴끼고? 내랑 가격 맞추자이? 혼자 또 잘보일끼라고 비싼 거 하지 말고! (복례에게) 언니는, 아니 조장님은, 이번에도 뭐 한개 안살깁니까?

공장 교대시간을 알리는 벨소리가 들리며 암전.

씬 3. 대현의 사무실

공장 교대시간을 알리는 벨소리가 전화 벨소리로 전환되며,
조명이 켜지면 작은 책상 하나 위에 노트북과 전화기가 있다.
대현이 책상 앞에 앉아있다.

대현 (전화를 받으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네. (사이) 네, 맞습니다. (사이) 그건 제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사이)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문젠니다.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리는 전화벨.

대현 (전화를 받으며) 네, 그 사건이요. (사이) 사건은 원칙대로 진행되니 걱정하지 마십쇼. (전화를 끊으며) 도대체 오늘만 몇 통째야.

대현, 전화벨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수화기를 든다.

대현 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아 이젠 환청까지...

머리를 쥐어 싸는데 전화벨소리(아까와는 다른 벨소리)가 울린다.

대현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확인하며) 응? 이 분이 왜...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전화가 끊긴다.

대현 (고민하며) 내가 걸어야 하나. 에이, 잘못 거셨겠지, 뭐. 이 분이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으시겠어.

주머니에 핸드폰을 다시 넣으려는데 벨소리가 다시 울린다.
(통화시, 前 상관은 목소리만 들린다.)

대현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는다) 네, 서대현
입니다.
前 상관 (중후한 톤의 목소리)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대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지요?
前 상관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면서 잘 지내고 있네. 퇴직하고 나니 적적하기도 하
고, 일하던 때가 그리기도 하고...
대현 아, 퇴직하셨는지 몰랐습니다.
前 상관 요즘도 일 많지?
대현 예, 뭐 그럴습니다.
前 상관 요즘은 무슨 사건 맡고 있어?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나?
대현 80억짜리 사건 하나 진행 중인데요. 규모가 크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그래도 선생님 계실 때, 선생님 밑에서 제가 제대로 배워서 깨끗하게 잘 처리하
고 있습니다.
前 상관 날 그렇게 기억해주다니 참 고맙군. 아들은 많이 컸고?
대현 (웃으며)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前 상관 이제 좀 있음 중학교 들어가겠네. 자네 닮아서 푹푹하겠구먼. 자식농사가 참 힘
들지. 나도 두 아이들 대학 졸업시켜놓고 시집, 장가 다 보내놨지만... 돈이 없
으면 참 힘들더라구. 그것도.
대현 하하... 네 요즘 세상이...
前 상관 그 업체 말일세. 지금 자네가 조사 중이라는. 거기가 우리 관내에서 꽤 오랫동안
안 사업을 하면서 두루두루 참 좋은 관계였는데 말이야. 거기 사장 아들도 곧
장가를 간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참 안됐어.
대현 아... 예... 안타깝습니다.
前 상관 아무래도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일이 커지면 참 여러 사람 힘들어지겠어.
대현 (고개를 갸웃거린다) 네...
前 상관 음. 뭐, 거기 일은 그렇다 치고. 자네도 빨리 빨리 윗자리로 올라가야하는데. 요
즘 세상에 자네같은 귀한 인재가 어딴나. 내가 다 아깝다, 아까워. 언제 한 번
식사나 같이 하세나. 그 근처 지나갈 때 또 연락하겠네.
대현 아, 네 선생님. 들어가십쇼.

전화를 끊고 노트북으로 열심히 서류 작업을 하는 대현.
핸드폰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를 받는 대현.

대현 네, 선생님.
前 상관 나 지금 여기 앞인데.
대현 네?

前 상관 점심 같이 하세나.
대현 (당황스럽다) 아.... 지금 일이 많이 밀려서, 제가 식사는 힘들 것 같습니다.
前 상관 아니, 사람이 밥은 먹고 일해야 하지 않겠나.
대현 아... 제가 아침을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안 고평니다.

前 상관,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며 무대 위로 등장한다.

前 상관 그럼,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을까?

대현, 前 상관을 보고 크게 당황한다.

대현 (핸드폰을 끊으며) 아니... 여긴...
前 상관 잠깐, 나가서 차나 한 잔 하세나.

암전

씬 4. 공장 / 대현의 사무실 / 공장

새댁, 미스 신, 송이 엄마가 무대 위에 있다.

새댁 복레 언니 실망이에요.
미스 신 원래 사람은 걸만 보곤 모르는 거래잖아요.
새댁 아후~ 진짜 누구 믿고 살아야 해~

복레 등장한다.

송이 엄마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입에 대며) 너거들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가?
조용히 안하나!

새댁과 미스 신이 복레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복레는 어리둥절하다.
복레, 새댁에게 다가간다.

복레 일하다 말고 왜 자리 비웠어?
새댁 (차갑게) 언니나 잘하세요.
송이 엄마 니 자꾸 와이라노.

새댁과 미스 신, 냉랭하게 복레를 지나 무대 사이드로 이동한다.

박 부장, 등장한다.

박 부장 문복레 씨. 잠깐 나 좀 봅시다.

복레 네, 부장님.

복레와 박 부장 다른 직원들과 따로 서서 이야기를 하면
송이 엄마는 그들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미스 신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박 부장 (한숨) 소문 사실이에요?

복레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 부장 제가 사장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복레 씨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다고 다들 꺼리는 걸, 제가 밀어붙여서 여기 들어오신 건 알고 계시죠? 복레 씨.. 인상도 좋고, 너무 절실해 보여서 그거 하나 믿고 제가...! 일도 성실하게 너무 잘해주셔서 지난 번, 조장 임명 때도 제 목소리가 크긴 했는데... 하 참... 이거 참...

복레 네, 당연히 기억하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 문복레 씨, 친분에 따라서 직원들 라인에 배치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복레 씨가 해야 하는 업무도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시켰다면서요? 위에 잘 보이고 싶으면 조장한테 먼저 잘하라고.

복레 (기가 막히다) 예?... 제가요?... 아니... 누가 그런 말을...

박 부장 나도 믿어지지 않더라구요. 뭐... 어떤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만, 아니 떴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뭔가 복레 씨가 사람들에게 책잡힐 일을 했으니 그런 소문이 난 거 아니겠냐구요. 지금 공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다들 설렁설렁 일하고 있고. 이번 주 주말까지 납기 일 맞춰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복레 말도 안 되는 애깁니다. (냉랭한 새댁과 미스 신이 있는 쪽을 쳐다보고 슬픈 표정으로) 정말 억울하지만... (한숨) 오해는 언젠간 풀리겠지요. 원하신다면 조장 자리 그만 두겠습니다.

미스 신, 복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려온다.

미스 신 정말요?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조장.

모두 놀라 미스 신을 쳐다본다.

미스 신 아니, 뭐 복레언니 나이도 있는데 힘들까봐. 1년 정도 하셨으면 꽤 오래 하신 거잖아요. 학교에서 애들 반장도 원래 임기가 한 학기인데...

송이 엄마 저게 뭐라카노?

박 부장 음... 미스 신은 조장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김 주임, 급하게 등장하며 끼어들다.

김 주임 아유~ 우리 미스 신은 (구두 양 뒷축을 소리나게 맞부딪치며) 눈썰미도 좋고, 사람 챙기는 것도 꼼꼼하게 잘하니까 한 번 시켜보시죠 부장님.

박 부장 (잠시 고민하다) 흠. 그래요. 그럼. 내가 한 번 지켜볼 거예요. 실망 시키지 마요.

김 주임 아 역시 우리 부장님,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미스 신 (꾸벅 인사를 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부장과 김 주임, 퇴장한다.

미스 신 (빈정거리며 혼잣말처럼) 사실, 실력이 부족하니까 열심히만 하는 거 아닌가? 자기만 그렇게 오버해서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돼.

미스 신, 퇴장한다.

송이 엄마 언니... 이걸 우얏꼬...

미스 신, 다시 등장해서 벽에 종이를 붙인다.

미스 신 (손뼉을 치며, 목소리가 이전과는 달라졌다. 보다 위엄이 있어 보이려고 힘준 목소리로) 주목!~ 각자의 역량에 맞게 업무 배치 새로 나왔으니까 확인 부탁드려요! (복례를 위아래로 훑고 퇴장)

새댁 (손뼉을 치며) 아싸아~

새댁, 복례와 송이 엄마의 눈치를 보고 입을 틀어막지만
즐거워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퇴장한다.

송이 엄마 (복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언니야...

복례, 벽으로 다가가 붙은 종이를 본다.
송이 엄마, 함께 다가가 종이를 살펴본다.

송이 엄마 (종이를 벽에서 뜯으며 구겨 버린다) 진짜! 저게 보자보자 하니까! (팔을 걷어붙이며) 내 안 되겠다! 언니야! 내가 이걸 그냥 콕!

복례, 구겨진 종이를 주워 구김을 피며 앉전.

무대 왼편 사이트에 작은 불이 켜지면,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복례가 보인다.
송이 엄마, 복례를 보고 한숨을 쉬고 다가와 복례의 등짝을 때린다.

송이 엄마 내가 다 속상해서 몬살겠다, 언니야. 내가 볼 땐, 이걸 언니가 할 일이 아니다. 더 힘 썬 아들도 천지빠까린데 와 언니한테 이 일을 시키노. 이제 곧 추석이다.

이번에는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반장이랑 조장한테 선물 한 번 돌리자.

복레 됐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아야지.

송이 엄마 뭐 언니가 선비가? 아주 대쪽같네~ 그러다 부러지는 거 모르나? 정말 바보처럼 와이카는데!

복레 송이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해. 근데 나 정말 괜찮으니까...

송이 엄마 다 그렇게 사는기다! 미스 신 봐라. 그렇게 당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나?

복레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편한 일로 옮긴다 치자. 그럼 이 일은 누가 하는데? 나 대신에 이 일 맡은 사람도 힘들어지면, 위에다가 선물 돌리고 다시 편한 일로 옮기겠지. 이게 무슨 악순환이니? 나라도 한 번 그걸 끊어볼래. 송이 엄마, 나 좀 응원해줘.

송이 엄마 언니 맘 내가 우에 모르겠노. 그치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단 소리 못 들어봤나?

송이 엄마와 복레가 있는 무대 왼편 사이드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 오른편 사이드에 조명이 켜지면

자판기 종이컵 커피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前 상관과 대현이 있다.

前 상관의 대사가 바로 이전 송이 엄마 대사에 오버랩 되어 등장한다.

前 상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산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고고한 것도 좋지만... (양복 안주 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대현의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때에 따라서는 좀 유연하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대현 (봉투를 다시 돌려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다) 선생님... 선생님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까. (양복 자켓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는다)

前 상관 누가 봐? 아무도 안 보잖아. 이건 우리 밖에 모르는 걸세. (타이르듯) 공직 생활도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혹시 자네 승진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생각 안 해봤나? 자네는 참 속도 좋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야. 이 험난한 세상 혼자서 어떻게 사나? 다 이렇게 도움주고, 도움 받고 하면서 사는 거지.

대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前 상관 계속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닐세. 딱 한번만, 이번에 자네가 눈 딱 한번만 감고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모른 척 하겠나? 다 자네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걸 왜 몰라! 사람, 답답하네 참... (한숨) 자네, 늘 나 존경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봉투를 건네며) 내 체면도 좀 생각해주게나.

대현 (봉투를 받지 않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던 이전 상관 분께 제대로 배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현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

대현 (전화를 받으며) 서대현입니다. 아 잠시 앞에 나와있습니다.

대현이 전화를 받으며 뒤돌은 사이,
前 상관, 봉투를 대현이 벗어놓은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다.
암전.

암전된 상태에서 IMF 뉴스 소리가 들린다.

여자 앵커 (나레이션) 종합금융 회사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금융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자 앵커 (나레이션) IMF와의 합의에 따라서 현재 7%인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올해 안에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뉴스 소리 fade out)

뉴스 소리가 페이드 아웃되면서 조명이 서서히 켜진다.
박 부장, 새댁, 송이 엄마, 미스 신, 복례가
박 부장을 중심으로 직원 조회 대형으로 모여있다.
침묵이 무겁다.

박 부장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뿐 아니라 지금 나라 상황이 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복례 (고개를 떨궈 마주 잡은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며 혼잣말한다) 그래... 여기까지 버틴 것도...

박 부장 그럼 저희가 어제 연락드린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댁과 미스 신, 침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간다.
복례, 송이 엄마, 놀란다.
송이 엄마, 자기 옆에 서있는 복례를 뜻밖이라는 듯 쳐다보지만
이내 다행이라는 듯 복례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무대 암전 되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난 뒤 무대 위 불이 켜지면,
머리가 하얗게 센 박 부장이 케익을 들고 서 있다.
그 곁에 역시나 머리가 하얘진 복례, 작업복을 입고 서있다.

박 부장 약소하게라도 잘 갖춰서 퇴임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문 여사님이 굳이 사양 하셔서 이 정도로만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사 정년퇴직 1호신데... (케익을 복례에게 전달하며) 너무 소박한 건 아닌지.

김 주임 이렇게 근속하신 분이 없으셨죠. 일이 참 고된데... 10년 썩이나..

복례 (김 주임의 끝 대사와 맞물리며) 10년이나 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부장 이제 와서 하는 얘이지만 사실... IMF 때 문 여사님이 인원감축 대상이었던 거 아시죠? 이름들을 짝 놓고 회의를 했었는데...

김 주임 (끼어들며) 문 여사님은 다 좋은 이야기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오랫동안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공장 청소도 하시고. 아무래도 문 여사님 덕분에 제 비염이 좀 나아졌나봅니다! 하하. 작업 일지를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파트에

서 계속 일 하시면서도, 바꿔달라고도 안하시고... 이걸 제가 잘 챙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박 부장 진짜 청탁 한 번을 안 하시고 10년간 청렴.. 청렴이란 말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10년간 여사님께서 청렴하게 일 하신 모습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도 모범이 되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구요. 여사님. (머뭇거리다가) 지난날을 쪽 돌아보니... 제가 오해한 적이 있었죠? 부끄럽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복레 아닙니다. (마음이 벅차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박 부장 여사님, 퇴임 후에도 계속 일해주시면서 저희에게 귀감이 되어주십시오.

복레 (믿기지가 않아서) 네?

김 주임 (핸드폰을 꺼내) 자자,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암전.

썸 5. 수진 집 거실

거실 기본 세팅.

수진남편만 빼고 온 가족이 모여있다.

재운 (벽에 걸린 복레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게 저 사진이에요?

복레 (웃으며) 할머니도 힘들 때는 눈 한 번 딱 감고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고 싶을 때가 있던단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말이다. 아무리 비싸고 멋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부품 중에 하나라도 불량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단다. 그런 생각으로 부품 하나하나를 만지고 검수하면서 늘 마음을 다잡았지.

수진 (복레의 손을 어루만지며) 엄마, 진짜 고생 많았어. 고맙고 미안해.

복레 (수진의 손을 마주 잡으며) 아무도 몰라주는 거 같아서 외로울 때도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미안했다. 승진 때마다 번번이 미끄러지는 니 아버지 보면서 무능하다, 융통성 없다, 가족들은 생각 안 하나, 타박했던 게 자꾸 떠오르더라구. 윗 분들한테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고, 애들 더 크기 전에 조금이라도 나은 직책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했는데... 니네 아버지는 그 때마다 사람 좋게 웃으면서 니네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 그게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유산이라고.

수진 아빠 장례식장에서... 아빠 친구가 했던 말씀 생각나네. 오빠 기억나? 다른 직원들 일이 많을 때 우리 아빠는 회사에 남아서 도와주시고... 회사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옳지 않다고 늘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보면, 오빠가 아빠 성격 많이 닮았는데, 그치?

대현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 착하게 사는 게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다구.

수진남편, 냄비를 들고 등장한다.

수진남편 (자랑스러워서)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수제비 했어요! 여기 들어간 야채들 다 유기농이에요!
수진 아니, 당신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수진남편 최고의 파티쉐 부인을 둔 남편한테 이 정도는 껌이지. 어제 삼시세끼에서 차츰 마가 수제비하는 거 보고 나도 해봤어! 어머니 드셔보세요.
복례 아유,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복례, 한 손갈 떼서 입에 넣고
나머지 가족들도 모두 손가락을 들고 앉은 차례대로 한 손갈 씹 뜨는데
손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대현 (먼저 한입 먹어보고, 대현부인을 쳐다보며) 음.. 수제비가 원래 이런 맛이었나?
대현부인 (입에 한 입 넣고 고개를 갸웃하고 수진남편을 쳐다본다)
수진남편 왜... 맛이 없어? (수진을 쳐다본다)
수진 (한 입 먹었다가 뱉으며, 냄비에 넣으려는 하은의 손가락을 뺏는다) 당신, 수제비 반죽에 뭐 넣었어?
수진남편 건강에 좋으라고 현미가루....
수진 현미가루?
수진남편 냉동실에 있는 거...
수진 (무대 사이드로 뛰어가서 봉투를 가져와 확인하며) 이거 유통기한 지났잖아. 일년이나 지났네! 유통기한 안 봤어?
대현부인 (손가락을 내려놓고 헛구역질을 한다)
수진남편 봤어...
수진 봤어?!!
수진남편 아니... 나도 조금 걱정은 됐는데... 그래도 냉동실에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지..... 아니, 당신이 평소에... 당신이 냉동실에 있는 건 괜찮다며!! 지난번에 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나 먹었잖아! 냉동 보관한 거라고 괜찮다고! 설마 안 되는 거였어? (드라마 속 비련의 여자 주인공처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과장되게 슬퍼하며) 흠...
수진 아니, 그건...! (가족들 눈치를 보며) 사자마자 냉동보관한 거고.. 한 달 밖에 안 지난 거였어! 아무튼.... 냉동실에 있다고 안 상하는 거 아니야.
수진남편 헝...
수진 버려야지, 버려야지 하면서 안 버린 내가 잘못이다. 으이그 이 인간아~
수진남편 아 당근이랑 애호박이랑 다 유기농인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복례 아니다, 아니야.
대현부인 그러고 보면 저도 처음 음식 할 때 그런 적 많았네요. 버리기 아까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해서 넣고 나면 꼭 사단이 나더라구요. 다른 재료들이 아무리 좋아도 상한 재료 하나 때문에 요리 전체를 다 망쳐버렸죠 뭐.
수진남편 (풀이 죽어서) 사실, 아까 냄새를 맡았을 때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뭐 현미가루는 몸에 좋은 거니까. 이정도면 괜찮겠지, 그랬죠. 바보같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 어찌면 우리 일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면 괜찮겠지, 하고 딱 한번 눈감고 한 행동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 말예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수진 오, 당신이 웬 일?

수진남편 나 이빠?

재윤 그럼 이 거 다 버려요? 에이 아깝다...

복례 괜찮아, 하나도 안 아깝다. 혹시라도 말이다. 너희들한테 ‘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말이다. (재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때 오늘 이 할미가 들려줬던 얘기와 이 수제비를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대현부인 재윤이는 지 애비 닮아서 착해요, 어머니.

재윤 (잠시 생각하다가) 사실... 저 지난 주에 말예요.

씬 6. 학교, 재윤의 반.

진구, 성재, 재윤이 서있다.

진구 (영수증을 내밀며) 왜 39개야?

성재 (당황한다) 어?

진구 왜 아이스크림이 39개냐고. 우리 반 34명이잖아.

재윤 아니, 그게...

진구 5개나 더 샀네? 니네가 더 먹으려고 그런 거야?

성재 (가방에서 쭈쭈바를 하나 꺼내며) 너도 하나 더 먹을래?

진구 장난해? 이게 니네 돈이냐? 알뜰 시장에서 우리 반 애들이 다 같이 해서 번 돈인데. 학급비를 니네 맘대로 쓰면 어떡해?

재윤 미안...

성재 야, 넌 수고비도 몰라? 그래, 우리가 하나씩 더 먹었다! 더운 날씨에 슈퍼까지 아이스크림 사러 간 건 우리잖아. 우리 반 대신해서 심부름한 거니까 하나씩 더 먹은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진구 어. 잘못이야.

성재 뭐?

재윤 (어쩔 줄 모르며) 애들아...

진구 니네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도둑질이야. 만약에 더 먹고 싶었으면 심부름간 애들은 하나씩 더 먹어도 되냐고 우리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성재 (진구에게 달려들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너 그렇게 치사하게 굴래?

재윤 (성재를 말리며 진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성재 선생님한테 이를 거냐?

진구 어.

성재 (쫓아서, 쭈쭈바를 쥐어주며) 진구야, 우리 친구잖아! 너 서재윤 절친이면서 어떻게 그러냐?

진구 (다시 쭈쭈바를 돌려주며) 환불해와. 하나씩 더 챙긴 다른 애들한테도 얘기해서 아직 안 먹은 거 있으면 그거 다 환불해와.

성재 (쭈쭈바를 바닥에 던지며) 야!

담임 선생님과 예빈, 세진이 등장한다.

담임 김성재!

아이들, 일제히 놀라 담임선생님과 여자 아이들을 쳐다본다.
눈치보는 재운과 성재.

담임 무슨 일인지 선생님한테 이야기 해줄래?
예빈 (재운에게 다가가) 괜찮아?

재운, 예빈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인다.
진구, 그런 재운의 모습과 예빈의 얼굴을 바라보다,
영수증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진구 선생님. 저기... 아이스.. (조용히 영수증을 뒤로 숨기며) 아니에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잠시 머뭇머뭇 거리던 재운이 진구의 손에서 영수증을 들고, 바닥에 떨어진 쭈쭈바를 집어 선생님 앞에 내놓는다.

재운 저... 학급비로 아이스크림 다섯 개를 더 샀어요, 선생님... 날씨도 더운데 저희가 심부름 갔으니까... 저희는 특별히 하나씩 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진 (예빈의 등을 살짝 치며) 헐, 대박!

재운 (고개를 들지 못한다) 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세진 (예빈의 등을 두번 치며) 헐, 대박!

재운 아이스크림 다섯 개 더 산 돈은... 제가 학급비에 채워 놓을게요. (진구를 쳐다보며) 진구가 발견 못했으면 이대로 비밀로 했을 거예요. 진구야... 미안해. (아이들을 쳐다보며) 애들아... 내가 잘못했어. 내 돈도 아닌데. (선생님을 향해) 죄송해요. 쌤...

성재 (같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세진 야, 니네..! 회장이랑 부회장이 어떻게 그러냐?

예빈 (걱정스럽게) 이거 다른 애들도 알아?

세진 (예빈에게 따지듯) 너, 회장 선거에서 서재운 뽑았지? 아씨... 난 홍성재 뽑았는데.... (진구에게 다가가 쩌려보며)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너한테 투표 안했어!!!

성재 누가...누가 나 뽑아 달라고 했냐?!

세진 야, 니가 연설할 때 정직하고 좋은 임원이 되겠다며! 우리 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성재 그...그건....

세진 몰라. (밖으로 나가며) 나 애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재운 세진아.

예빈 (세진의 팔을 잡으며) 야아...

재윤 세진아. 내가, 내가 얘기할게. 반 애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얘기하게 해주라.

성재 그래... 진짜 쪽팔리지만... (약간 울먹이며 손등으로 눈가를 누른다) 아 몰라... 우리가 얘기할게. 아... 애들이 엄청 실망하겠지? 만약에 애들이 부회장 그만두려면... (비장하게) 난 그만 둘 거야.

세진 (좀 누그러져서) 야 흥성재....

성재 우리 엄마가 나 부회장 됐다고 우리 반에 피자랑 치킨 돌렸는데... 아파트 아줌마들한테도 엄청 자랑하고.... (랩하듯) 큰아빠, 작은엄마, 고모, 이모, 외삼촌, 행당동할아버지, 화곡동할머니, 김포아저씨... 다 전화해서 나 부회장 됐다고 자랑했는데... (울먹이다 엉엉 운다)

진구 (당황해서) 성재야...

담임 서..성재야?...

성재 나 너무 창피해... 으허허형...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세진에게 다가가서) 나 뽑아준 너희한테도 미안하고....

세진 (살짝 같이 울먹이며) 아아... 울지마. 너 울면 더 못 생겨 보여.

성재 (예빈에게 다가가서) 나 안 뽑아준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예빈 (민망한 표정) 어... 그래...

성재 허허형.. (진구와 재윤을 끌어안고 더 크게 운다) 그냥 다 미안해...

갑자기 울음을 그치는 성재.
모두 긴장한다.
성재, 담임에게 다가가고 담임, 긴장하며 주춤한다.
담임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며 통곡하는 성재.
담임은 당황하며 성재를 달래려고 하지만 성재 담임보다 더 힘이 세다.

성재 선생님!!! 으허허형... 내가.. 내가 애들한테 하나씩 더 사먹자고 했어요. 재윤이는 이거 우리 돈 아니라고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담임 (달래며) 그래...그래 성재야... 우리 성재가 진짜 많이 잘못했다고 반성하는구나. 응, 선생님이 잘 알겠어. 잠깐만...잠깐만 똑!

더 크게 우는 성재.

세진 흥성재!

성재, 울음을 멈춘다.

담임 (크게 숨을 쉬고) 선생님은 지금 너무 기뻐. 아까는 잠깐 실망도 하고... 선생님이 너희를 잘못 가르친 거 같아서 슬프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너희한테 너무 고마워. (진구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 친구는, 학급비 관리를 맡은 반장으로서 자기 할 일을 잘 해준 거야. 선생님이 친구에게 그 일을 맡긴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환히 웃으며) 선생님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본 것 같아. 친구는 반에서

재윤이랑 제일 친하지?

진구 (고개를 끄덕이며 재윤을 쳐다본다)

담임 친구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좋은 친구야.

진구 (재윤의 손을 슬쩍 잡는다)

담임 (재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재윤이는 회장으로 다 책임지고 아이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다고 한 용기가 참 대단해. (성재에게) 우리 성재는 부회장을 그만두겠다는 결심까지 하면서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지? 엄마 실망하실 거 알면서도.

성재 네... 저는 부회장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거할 때 연설에서 친구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잦아요...

담임 (성재를 안아주며) 우리 어른들이 너희한테 배워야 할 것 같아. 공금에 손 대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들키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 하나 하나를 토닥이며) 고맙다, 애들아. 정말 고마워.

암전.

썩 7. 수진 집 거실

재윤 예빈이가 앞에 있어서 너무 창피했고, 사실 난 몰랐다고 거짓말 하고 싶었어요.

대현부인 그래, 너 예빈이 좋아하잖아.

수진 재윤이 좋아하는 애 앞에서 부끄러웠겠네.

재윤 네. 진짜 너무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치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보고 있으니, 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면 예빈이가 더 실망할 것 같아서...

수진남편 이야, 우리 재윤이 멋진 남자네? (수진에게) 여보야, 나도 그렇다? 나도 막 사회 생활하다보면 여러 유혹들이 와요. 아 이번에만 그냥 눈 딱 감고 못 본 척하자, 가늘고 길게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을 고쳐 먹는다고. (씩씩하게 목소리를 바꾸며) 아니지, 우리 여보랑 하은이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밖에서, 우리 여보랑 하은이가 이 걸 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겠다~ 하는 일들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수진 (엉덩이를 토닥토닥하며) 아이구 그랬어요?

수진남편 근데, 자기는 냉동실에 유통기한 지난 고기나 먹이고..... 나 너무 슬퍼~

수진 아, 정말! 이 사람이 또...!

수진남편 에헤이~ 아 농담이야, 농담~ (하은이를 번쩍 안으며) 하은아~ 아빠가 이렇게 산다~ 누님이랑 사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하은이의 팔을 잡고 수진을 향해 공격하는 흉내를 낸다) 엄마 때찌~ 때찌~

재윤 (기운이 없이) 엄마... 나한테 실망했지?

대현부인 아니이?~ (재윤을 안아주며) 엄마는 우리 재윤이가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재윤 아빠는?

대현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재윤의 어깨만 두들긴다)

수진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랑~ 사위랑~ 조카까지. 다들 정직한 사람들이네. 아 오늘 기분 참 좋다.

복례 먼저 간 니들 아버지랑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재산은 물려주진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니들 인생에 청렴이 가장 멋진 유산이 되어줬음 좋겠어.

하은 형님이 뭐야?

재윤 청렴!

하은 청렴이 뭐야?

수진 우리 하은이가 좋아하는 파란 하늘처럼, 보면 기분 좋고, 예쁘고, 깨끗한 거야. 거저말 안하고 착하게 사는 거. (종이봉투를 발견하고) 이게 뭐예요?

하은 내꺼야! 할머니가 나 사준 거야!

수진남편 (종이봉투에서 인형과 소꿉놀이세트, 셀카봉, 노트 등을 꺼낸다) 아유, 어머니도 뭘 이런 걸 사 주세요. 요즘 애들 장난감도 비싸요. (영수증을 보며) 응? 왜 이렇게 싸?

복례 (돈보기를 쓰고 영수증을 보곤) 이 양반이 계산을 잘못했구먼. 아이고, 야구 중계 보면서 계산하더니 정신이 없었나보네. (지갑을 챙겨 나가려는데)

재윤 그냥 땡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대현부인 (기가 막혀서) 너 지금까지 무슨 애길...

재윤 에이, 아 농담이지, 엄마! 아들을 뭘로 보고! 우리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고모부 수제비! 나 평생 기억할 거라구~

수진남편 재윤아, 앞에 고모부는 빼고 그냥 '수제비'라고만 기억해주면 안되겠니. 나는 유통기한 지난 현미가루로 수제비 만든 고모부로 평생 기억되겠네. 슬퍼서 어떻게 하나~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대현, 무대 사이드로 이동한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fade out 되고 무대 중앙의 불이 꺼진다.
 대현, 주머니 속에 봉투를 꺼내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한다.

대현 선생님. 저 서대현입니다. 아까 봉투 속에 들어있는 금액 보고, 사실 저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 만나서 고생하는 와이프랑 우리 아들 생각해서, 이번 한 번쯤은 그냥 나 하나 더러워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승진도... 하고 싶었구요. 그렇지만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께서 외롭고 괴로우시면서 저희에게 주고 싶었던 게 있으십니다. 제가 받은 그 유산, 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잘 간직해서 제 아들에게도 물려줄 거구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대현, 마음이 후련하다.
 하늘을 보고 웃는다.
 웃으면서 눈물이 난다.
 집 밖으로 복례가 나온다.

복레 대현아.
대현 어머니... (복레를 끌어안고) 엄마...
복레 너 무슨 일 있니?
대현 엄마... 늦게 와서 죄송해요.
복레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 괜찮아. 늦어도, 이렇게 왔으면 된 거다.

 재윤, 등장한다.

재윤 아빠!
대현 숙제 다 했어? 아빠가 도와줄까? 아까는 아빠가 신경질 나서 미안했어. 아빠가 잠깐... 창피한 짓 할 뻔 했거든.

 대현부인, 잠바를 들고 등장.

대현부인 뭐, 이렇게 말없이 나가. (잠바를 걸쳐주며) 날도 추운데.
대현 여보 나 아무래도... 이번에 승진... 또 밀릴 거 같다.
대현부인 으이그~ 지금 그래서 기분이 이런 거야?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괜찮아!
 아, 내가 뭐라고 해서 그렇구나? 느리다구. 에이~ 그냥 그냥 농담이야. (혼잣말 처럼) 사실 진담도 섞여있긴 하지만. 됐어! 우리 지금 행복하잖아. 그럼 된 거지 뭐.

 셀카봉을 든 하은을 데리고 수진과 수진남편도 나온다.

수진남편 추운데, 왜들 나와 계세요?
수진 오빠. 혹시 울었어?
대현 무슨 소리야. (뒤돌아 얼굴을 한 번 닦는다)
하은 (셀카봉을 들고 춤을 추며) 뽀로롱~
재윤 어~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재윤, 셀카봉에 핸드폰을 연결하는 동안 가족들 옹기종기 모인다.

재윤 자, 하나, 둘, 셋~

 찰칵 소리/ 반짝 조명과 함께 암전.